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집 제 4 집  
기독교신학편 pp.157~185

## 한국장로교회의 이상적인 장로직무에 관한 칼빈주의적 연구

A View of Calvinistical's Principle:

A Study of Desirable Presbyterial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조 명 은\*

###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는 선교100주년을 넘기기 전까지는 세계교회사에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 특히 많은 교파들 중에서 장로교의 성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 만큼 한국교회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이유는 장로교의 정체체제의 우월성이라 할 수 있다. 개혁주의 장로회 정치사상과 체제는 다른 교파의 교회정치사상과 체제보다 우위성을 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일반 세상 정치사상과 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장로교의 정치사상이 교회에 발전에 미친 원동력은 먼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헌신적인 열성과 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과히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나 선교100주년의 분수령을 넘기고 난 다음부터 한국의 장로교회는 점점 침체를 가져오는 역사적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장로교의 분열과 그리고 목사와 평신도간의 갈등 나아가 목사와 장로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한국교회는 목사와 장로간의

\* 안양대학교 교수

## 4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집 제 4 집(1999)

심각한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는 목회적 관계이다. 즉 목회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사역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목사와 장로는 순치관계를 이루워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장로교회는 어느때 부터인지 협력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두반의 장로가 서로의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여 나뉘어 자신들의 본분과 직분을 이용하여 그 도가 지나쳐 교회의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장로와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분열이 심하게 일어난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장로가 교회의 주인노릇을 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교인의 대표인 장로의 권한아래 목사가 일일이 허락과 지시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는 곳도 있다. 분명한 것은 장로도 교인이며 교인은 설교나 교훈이나 지도나 권면이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장로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목회를 함으로서 교회의 분란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곳도 있다.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는 개혁교회(Reformed Church)이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비성서적인 교회들을 거부하면서 성서적인 교회로 재조직한 장로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개혁교회인 장로교회가 비성서적이고 불법적인 교회로 성장한 면이 다분히 있다. 장로교회라는 말은 마치 장로(長老)라는 말에 교회를 덧붙인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는 장로(Elder)라는 말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장로회(Presbytery)라는 정체성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sup>1)</sup>

그러므로 장로교회는 부단히 개혁의 필요성을 안고 있는 교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한국 장로회의 역사성이 무시되고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침체현상)들이 나타나게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와 장로가 자신의 위치(Status)와 본분을 벗어나 잘못 인식된 직무에 관한 이행 때문이라 사료되어 진다. 바로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들의 근거는 역사적인 장로교회의 신학적(칼빈주의)인 중심사상에 근거한 정치이념과 장로회주의를 잘못 인식한데서 야기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목사와 장로와의 정체성(Identity)을 칼빈주의적인 장로정

1) 손병호, 「장로교회의 역사」 (서울 : 도서출판 그리인, 1993), p. 185

치의 바른 원리를 통해 한국교회의 장로직무에 관한 이상적인(역사신학적:칼빈주의) 위치와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글의 2장에서는 한국초기 장로회의 원리와 장로직무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한국 현 장로교회의 장로와 목사의 갈등의 사례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장로직무에 관한 칼빈주의적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5장에 이상적인 장로직무<sup>2)</sup>에 관한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 II. 초기 한국 장로회의 원리와 장로직 기원과 직무

여기서는 한국의 초창기 장로회가 지녔던 장로회 정치와 당회의 직무 그리고 장로의 직무를 살펴봄으로써 1960년도를 기점으로 통합측과 분리된 이후에 나타난 개정된 장로회의 헌법을 근거로 갈등의 근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현대장로회(통합)의 목사와 장로의 갈등에 관한 설문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목사와 갈등의 현주소를 지목해보고자 한다.

### 1. 한국 초기 장로교회의 설립과 장로회 정치

한국의 장로교회는 미국 북장로교회가 1884년을 기점으로 알렌선교사의 내한으로 시작하여 최초로 설립된 교회가 솔내교회(1885)이다.<sup>3)</sup> 솔내교회는 미조직 교회로서 최초의 장로교회이다. 초기 한국선교에 관심을 가진 외국 선교부<sup>4)</sup>는 4개의 장로교회였다. 이후 1889년에 장로회 선교부 연합조직이 이루어져 정치형태가 아닌 친목단체형태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01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공의회”가 설립되어 한국인의 김종섭이 장로로 안수를 받았다.<sup>5)</sup>

- 2) 장로직무라함은 장로교의 헌법 총론 5에 나오는 두반의 장로인 치리장로와 강도장로인 목사의 직무를 말한다.
- 3)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신내교회당, 1928), P. 9 : 언더우드가 솔내에서 20여명의 세례지원자들에게 수세를 베풀고 1887년에는 서경조, 최병오등이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었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최초의 조직교회는 1887년에 세워진 새문안 교회로 조선야소교 사기는 전하고 있다.
- 4) 미국 북장로교회는 1884년 300여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1892년에는 미국남 장로회가 그리고 호주의 빅토리아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장로회의 선교이다.

조선예수교 장로회공의회는 길선주, 방기창등 조사 6명이 참여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회”와 ‘영어를 사용하는 회’로 나누어 교회의 치리권을 영어를 사용하는 회에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공의회에 통괄된 장로회를 만들기 위해 호주장로회의 노력으로 자유장로회의 설립을 1905년에 승낙하였고 1907년에는 한국인 7명이 목사로 안수를 받아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라는 일명 독노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 후 1912년에는 7개 노회로 분립 발전되면서 비로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설립되었다<sup>6)</sup>.

이때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노회의 승인을 얻어 교회정치 제2장 4조<sup>7)</sup>에 의거하여 개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를 지교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교회는 두 가지를 구분하여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와 당회가 조직되지 못한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하였다<sup>8)</sup>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는 공동의회보다 당회의 구성여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교회의 완전한 조직을 갖춘 교회의 기준이 당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는 장로회의 정치체제가 공동의회(치리기관이 아님을 나타냄)라기 보다는 당회가 장로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당회의 중요성은 공동의회 위임을 받은 신자의 대표인 장로가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려는 데 있다는 점이다.

## 2. 초창기의 한국장로회 정치와 장로직 기원과 직무

여기서는 한국장로회의 초창기 헌법에 나타나는 장로의 기원, 장로회정치원리, 그리고 장로의 직무를 비교해 살펴보고 현대교회에서 나타난 갈등의 원인들을 살펴본다.

먼저 초창기의 당회직무와 장로의 기원과 직무에 관한 1922년 관련법에 나타난

5) 곽안연, 함태영 편, “장로교 사전록집” 조선예수교 서회 1918, P. 15

6) Ibid, PP. 18-19

7) 1922년판, 제2장 4조 : 支教會는 伽處에던지 예수를 믿는다고하난 人衆들과 基子女等이 基願대로 舍心하여 하나님을 敬拜하며, 聖潔하게 生活하고 예수의 國을 擴張키 위하여 聖經에 敎訓한 規範대로 聯合하며, 特別히 配定한 바 服從하며, 時間을 定하여 共同히 會集하면 支教會라 하나니라

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9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71), p.52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律法時代に 敎會를 管理하난 長老를 設立함과 같이 福音時代에도 牧師 外에 敎會를 治理하난 者를 擇入하였나니 卽 治理長老니라”<sup>9)</sup>라고 기술되어 있다.

현대교회 헌법 제5장 1조에 보면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을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합동, 고려, 합동보수, 개혁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드리고 있으나 통합과 기장은 이를 삭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초창기 헌법에는 총론에서 5항의 장로회 정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3. 장로회 정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여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반으로 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써 노회 및 총회에 이같은 3심제가 있다. 이런 정책의 기원은 모세(출 3:16)와 사도(행 14:23, 딤후 1:5)때 있었던 제도요.... 중략.....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 중략.... 영국의 각 노회와 대회에 의해 가결된 이후 총회가 헌법으로 채택한 것이다..... 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에 제6회에서 헌법을 수정 채용할 때에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집한 것이다.”<sup>10)</sup>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은 만국장로회와 함께 웨스트민스트(Westminster)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1917년 9월 제6회 총회가 채택한 헌법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수정한 것이었고 그후 수차 변경을 가해서 사용해 오고 있다<sup>11)</sup>

그러나 현대교회의 헌법에는 각 교단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합동,

9) 박병진, 「교회정치통감」(서울 : 성광문화사, 1993), p.247

10) Ibid, p. 48.

11) 박병진 Ibid. pp. 31-38.

개혁, 보수측에서는 장로회 정치의 원리인 총론부분을 현재까지 채택해오고 있으나 기장, 통합측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현대의 진보적인 교단에서의 갈등의 문제점이 되지 않았나 사료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장로직무에 있어서 1922년 헌법을 살펴보자

“치리장로나 敎人の 擇함을 받고 代表者가 되어 牧師들과 協同하여 治理와 勸懲의 事를 관리하며 支敎會 惑 全國敎會의 神靈的 關係를 統率하나 나라. 主께..... 중략 ..... ,..... 長老는 敎인과 함께 기도하며 爲하야 祈禱고.....중략.....悔改하난 者와 特別히 救助 받을 자가 있을 때에는 牧師의 報告할 거시니라....<sup>12)</sup>라고 되어 있다.”

현대교회의 헌법에는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초기 1922년판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유지하고 있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권면하고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5)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 6)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7) **목회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 합동:제4조, 개혁:제4조, 보수:제4조)

그러나 기장과 통합측은 6)을 없애거나 7)에서 목사 대신 당회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다.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중략....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장:제31조, 통합:제39조)고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초기장로회의 헌법에서 나타난 것은 장로가 목사의 협력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의 내용에서는 장로가 목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직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장이나 통합측의 경우를 보면 장로의 직무인 “교인을 돌아보고”라는 보고하는 과정에서 초기헌법과 보수성향을 보이는 교단에서는 “목사에게 보고한다”로 되어 있으나 기장과 통합측은 “당회에 보고한다”로 되어 있다. 물론 “당회에 보고하는 것”과 “목사(당회장)에 보고한다는 것”은 거의 동의어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의 직무상의 동등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성향의 교단에서는 이러한 문귀에서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의 소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Ibid, p. 26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장로회의 정치체제를 살펴보면 지교회에서 당회장은 효과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으며 장로는 당회장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당회장의 독주나 그릇됨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회원의 과반수가 당회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장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져 있다.<sup>13)</sup> 그외에도 헌법, 교회의 치리와 정치 그리고 성찬예식등에서도 목사와 장로는 서로 협력관계의 형태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지교회를 이루워왔다.

또한 초기 장로회의 치리와 당회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제9장 5조(통합 10장 67조)에 근거하여 모든 교회의 행정 및 치리를 당회에서 관장하였다. 이는 현대의 헌법에도 동일한 내용을 거의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회장의 권은 당회원과 동일하다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당회장 없이는 당회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리장로가 여러명이 있어도 당회장이 없으면 당회가 구성되지 않으며 당회로써 효력을 발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회원이 당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이것은 장로회가 민주체제의 기본형으로써 장로회의 운영면에 있어서 서로의 견제와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다른 교회정치체제 보다 우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초창기의 한국장로회의 헌법과는 다르게 현대교회가 약간의 수정들이 있었지만 상호간이 협력을 통한 정치를 해왔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당회원인 장로는 당회장인 목사를 보좌하고 협력하여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긍정적으로 취하는 직무임이 보여지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 Ⅲ. 현대 한국 장로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갈등 사례

본래 한국의 장로교회가 출발할 때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자부하고 출발한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목사와 장로와의 협력관계는 갈등의 관계로 이어졌고 나아가 비민주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원인과 요소들이 있지만 필자는 여기에 근거하는 갈등의 사례를 약 5가지로 집약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장로의 위임목사에 대한 임기 문제성이다. 이에 반해

13)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op. cit., p.71.

둘째로 목사의 장로에 관한 시무장로의 임기제도이다.<sup>14)</sup> 셋째로 설교의 갈등의 문제이다. 넷째로 인사갈등이다. 다섯째는 재정의 갈등으로 찾아보고자 한다.<sup>15)</sup>

## 1. 위임목사의 정년에 대한 초기장로회와 현대장로회의 상관성

### ① 1930년도 헌법:

\* 四條: 牧師 稱號 : 牧師가 그 擔任한 視務와 形便을 因하여 左記와 같은 칭호 가 있나니라

(-) 委任 牧師 : 一支教會나 一區(西支教會까지 可하되 그 中 組織된 教會가 一 以上됨을 요함)의 請聘으로 老會의 委任을 받은 牧師니 特別한 理由가 없으면 그 擔任한 教會를 終身視務할 것이니라.

### ② 고려 : 제34조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이다.

### ③ 기장 : 제20조

1.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그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다.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통합 : 제27조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 ⑤ 합동 : 제4조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을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위임목사 :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14) 이 부분은 통합측의 교단에서 나타난 갈등의 사례이다. 오신주, 「이상적 장로직에 관한 연구」(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1976)에 나타난 사례에서 재인용.

15) 이상용, 「지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간의 상호이해와 갈등에 관한 연구」(서울: 정로회신학대학원, 1988)사례인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교단의 위임목사에 대한 임기에 대해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즉 합동측에서의 목사의 임기가 70세까지로 할 때 나타난 문제점이 비민주적이라는 점이다. 즉 노령으로 인한 능력의 부족, 나아가 일반 사회적 직장의 정년이 교사가 65세(최근에 63세로 줄어들음)인데 비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로들이 헌법에 보장된 목사의 임기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6)</sup> 다시 말해 목사의 정년이 보장됨으로써 목사의 목회방침이 독단적이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통합측이나 고려측은 명확한 임기의 규정이 없으므로 담임목사가 확실한 즉 법적인 보장이 배려되지 않고 어떤 환경(설교의 자질부족, 병환, 윤리적 문제) 등에 의해서 담임목사인 당회장의 거처가 당회원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법적인 보장을 요구하지만 장로는 교회의 성장, 영적인 측면에서 목사의 퇴임을 주장하여 민주적인 결정을 행사함으로써 갈등의 요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임목사의 임기에 관한 갈등으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서로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에 대한 상황성에 대한 갈등의 증폭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설문 조사의 표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7)</sup>

여기서는 장로와의 갈등으로 인한 목사의 설문조사 표본이다.

※ 장로와의 갈등문제에 있어서 목회지를 옮겨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목사의 연령에 대한 설문조사, 총 224명의 참가자 가운데 165명이 응답함

16) 오신주, op,cit,p.80.

17) 본 설문조사는 통합측의 72회 총회총대목사 510명, 장로 4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임. 이상용, op, cit, p.56.

〈표 1-1〉

구분 문항	30세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계
참가년령		9	79	102	34	224
응답수		1	19	32	13	165
%		11.1%	24%	31%	38.2%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장로와의 갈등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나아가 목회지를 옮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로와의 갈등문제에 있어서 연령이 많은 목회자에 대해 장로들이 상대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장로와 목사의 갈등에 있어서 장로의 시무기간에 관한 상관성

초기장로회의 헌법과 현대의 개정된 헌법을 통해 살펴보자.

### ① 1922년판 헌법 : 五항-임기

治理長老及執事の職은終身恒職인즉本人이任意로解免하지 못할 거시오免職할事外에나教會도任意로解免하지 못할 거시니라.

### ② 고려 : 제3장 교회직원(헌규)

제1조 시무정년의 제한

교회직원의 시무정년의 제한은 정년되는해 연말까지 한다.

### ③ 기장 : 제38조 집사

3. 집사의 선임과 임기는 : 집사의 선임은 당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이다.

### ④ 통합 : 제4장 교회의 직원(해석서)

제29조 : 항존직의 시무정년 제한은 정년 되는 해(70세) 연말까지 한다.

### ⑤ 합동 : 제4조 임기

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70세까지이다. 단 3년에 1차씩 시무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 ⑥ 보수 : 제4조 임기

치리장로 집사직은 종신직이다. 단, 3년에 1차씩 시무투표할 수 있고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휴직장로가 된다.<sup>18)</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교단에 대한 장로의 임기제가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장로회의 헌법에 비교할 때 기장과 통합, 고려측은 장로의 시무 정년에 대해서 초기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70세라는 정년을 받아드리고 있으나 시무에 관한 신임에 대해서는 초기헌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합동과 보수측은 장로의 정년을 종신직으로 하나 시무에 대한 투표를 상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교적 보수주의 입장에 있는 교단에서는 장로와 목사와의 갈등이 적은 반면에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교단들은 갈등의 문제들이 타 교단에 비해 더 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로 신임에 관한 법적인 보장이 있음으로 인하여 장로직무에 대해 좀더 자유로우며 나아가 목사와의 대립관계에 대한 배경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상용이 통합측의 목사들에게 행한 설문 “장로들이 교인들에게 신앙으로 모범을 보이느냐?”를 살펴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나타난다. 각 연령층에서 본을 보인다고 응답한 수는 50%를 넘는 곳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장로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느냐? 라는 목사에게 행한 설문조사

〈표 2-1〉

구분 연령	30세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계
참가자		9	79	102	34	224
그렇다		33.3%(3)	45.6%(36)	37.3%(38)	38.3%(13)	( 90)
아니다		-	13.9%(11)	9.8%(10)	8.8%(3)	( 24)
그저그렇다		66.7%(6)	40.5%(32)	52.9%(54)	52.9%(18)	(110)

( )은 응답자의 수

18) 박병진, op, cit., p.580.

## 14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집 제4집(1999)

이와 같은 설문의 사례는 장로는 반드시 시무투표를 통해 신임의 가부를 물어야 한다는 표본으로써 정립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는 장로가 위임목사에 대한 불신임에 대한 하나의 반동의 역학으로 나타난 장로의 신임투표라는 “신앙의 모범”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목사와 장로의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례이다.

### 3. 목사와 장로의 갈등원인은 목회방침과 설교에서 오는 갈등이다.

목회현장에서 목사와 장로간에 가장 많이 부딪치는 문제중 하나가 목사의 목회방침과 설교라고 볼 수 있다. 현대교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간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목회방침과 설교에 대한 이상용의 설문지에서 보면 목사응답자와 장로응답자가 상호간에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설교 때문에 장로와 갈등을 느낀적이 있는가?

〈표 3-1〉 목사 응답자

구분 문항	있 다	없 다	무응답	계
응답 인원수	48	162	14	224
%	21.4%	72.3%	6.3%	100%

〈표 3-2〉 장로 응답자

구분 문항	있 다	없 다	무응답	계
응답 인원수	96	133	5	234
%	41.1%	56.8%	2.1%	100%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목사응답자와 장로응답자의 설교갈등을 각각 분석한 결과 장로응답자가 목사응답자보다 훨씬 많은 설교의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호갈등의 대비표를 분석하면 목사가 224명중 48명(21%)이 갈등을 말하

고 있으며 장로는 235명중에 96명(41.4%)이 더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용은 덧붙이기를 일반적으로 목사입장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이 있으며 반면 장로는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설교의 갈등이 높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sup>19)</sup>

이러한 표본을 통해 살펴볼 때 중요한 점은 설교를 전하는 자의 측면에서 문제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전문적인 사역의 결핍이라할 수 있다. 물론 듣는자의 책임도 없지는 않으나 장로와의 갈등에서 이러한 사례는 쌍방적인 것보다는 일방적인 책임이 더 클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갈등의 원인은 목회자의 목회방침에 대한 사례이다.

※ 목사의 전체적인 목회와 목회방침에 만족하는가?

〈표 3-3〉 장로 응답자

구분 문항	만족	불만	그저 그렇다	계
참가자수	89	35	110	234
%	38%	15%	47.0%	100%

목사의 목회방침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사의 목회와 목회방침에 만족하느냐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만족한다”에 38%, “불만족한다” 15%, “그저 그렇다”가 47%로 나타났다.

이상용의 설문지에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률이 낮고 불만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 이상용, op, cit., p.85-99

〈표 2-4〉 연령별 응답자수

구분 문항	40세 이하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계
참가년령		37	100	97	234
만 족		10(29.7%)	36(36.0%)	43(44.3%)	89
불 만		8(21.6%)	16(16.0%)	11(11.3%)	35
그저그렇다		19(48.6%)	48(48.0%)	43(44.4%)	1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장로들이 상당한 갈등의 소지를 목회자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목사는 목회의 방향이나 지침을 자신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서 기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로는 목회의 방침을 당회에 알리고 상의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이고 헌법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듯 하다.

#### 4.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갈등이다.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의 문제는 당회의 인사권에 관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 교회의 인사권의 갈등은 목사의 독단적이거나 또는 장로들의 집단적인 다수의 횡포에 대한 서로의 불신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목사와 장로 두반의 설문을 토대로 근거를 살펴보자.<sup>20)</sup>

※ 인사권에 대해서 장로와의 갈등을 느끼는 적이 있는가? 224명이 응답했다.

〈표 4-1〉 목사 응답자 (224명이 응답함)

구분 문항	있 다	없 다	무응답	계
응답 인원	72	134	18	224
%	32.2%	59.8%	8.0%	100%

20) Ibid., p. 90-93.

※ 인사권에 있어서 목사와 갈등을 느낀적이 있는가?

〈표 4-2〉 장로 응답자(234명이 응답함)

구분 문항	있 다	없 다	무응답	계
응답 인원	75	148	11	234
%	32.1%	63.2%	4.7%	100%

위의 표에서 나타난 대로 당회의 직무상 장로와 목사간의 인사갈등의 문제가 각 응답자의 32.2%, 32.1%로 거의 비슷하다. 이것을 보면 인사의 갈등은 두반의 장로간의 거의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로의 의견의 반영이 이루어지기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목사응답자에게서는 연령이 인사갈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로응답자들에게는 젊은 장로일수록 목사와의 인사갈등에 있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목사의 인사행정에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 참조

〈표 4-3〉 연령별 대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문항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목 사		33.3%	29.2%	33.3%	35.3%
장 로			54.1%	30.0%	25.8%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서로간의 감정이나 영역을 떠나 하나님의 달란트에 의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목사의 독단적인 것에 장로의 젊은 층일수록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장로회의 민주적인 형태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5. 목사와 장로와의 주요한 갈등은 재정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한 갈등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세대 목회자에 있어서는 목사의 작용이 크며 2세대에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장로의 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용의 설문조사 표본을 근거로 갈등의 현장을 찾아본다.

※ 재정문제에 있어서 장로와의 갈등의 문제를 느낀적이 있는가?

〈표 5-1〉 (응답자수 224명)

구분 문항	있 다	없 다	계
응답자수	81	143	224
%	36.2%	63.8%	100%

※ 재정문제에 있어서 목사와의 갈등의 문제를 느낀적이 있는가?

〈표 5-2〉 (응답자수 234명)

구분 문항	있 다	없 다	무응답	계
응답 인원	72	151	11	234
%	30.0%	64.5%	4.7%	100%

※ 상호갈등의 대비표

〈표 5-3〉

구분 문항	목사 (224명)	장로 (234명)
응답자수	81	72
%	36.2%	30.8%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의 문제는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할 주요한 것으로 목사뿐만 아니라 당회원의 직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목사 응답자가 장로응답자보다 재정문제로 더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로의 연령층이 낮은 젊은 장로일 경우에 재정의 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상용의 설문조사에 나타나고 있다. 〈표 5-4〉 참조



〈표 5-4〉

구분 문항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목 사	33.3%	34.2%	38.2%	35.2%
장 로		45.0%	31.0%	24.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의 갈등에 있어서는 젊은 장로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1세대의 목회자에 대한 장로의 갈등이 있다. 이는 1세대의 목사에게서 독자적인 재정의 집행이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젊은 목사에게서는 재정에 대한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정이 장로의 담당 부분임을 느끼고 당회의 효율적인 적용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다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장로교의 장로직무에 대한 가장 많은 갈등의 사례를 위임목사의 임기와 거기에 대한 역학적인 장로의 신임투표제 그리고 설교와 인사, 재정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설문지 사례들을 살펴볼 때 갈등의 문제는 장로회의 원리적인 문제에 있는 것보다는 직무수행의 독단, 목사의 목회방침에 대한 독단과 거기에 대한 견제 그리고 장로의 다수적인 횡포라는 감정의 상황들이 내재하는 폭발성을 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설교, 인사, 재정의 문제 또한 심각한 갈등의 무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는 장로의 귀를 거슬리까바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로 또한 말씀이 자신의 귀에 거슬려 목사의 설교에 항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의 장로교이다. 또한 인사와 재정 등도 서로의 원리적 장로의 직무보다는 하나의 세력과 권위적인 것으로 쟁탈의 많은 요인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갈등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라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장로회의 이상적(역사신학적:칼빈주의적)이고 원리적인 면의 심각한 결여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로직무에 관한 원리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IV. 장로직무에 대한 칼빈주의적 이해

여기서는 한국교회의 이상적인 장로직무에 대해 바른 이해를 정립하기 위해 장로직무에 대한 칼빈의 강요IV권 교회론에서 나타난 이해와 칼빈이 교직을 말하면서 나타나는 장로 직무에 대한 이해를 찾아보고자 한다.

### 1. 칼빈의 교회론에 나타난 장로직무에 대한 이해

칼빈이 말하는 장로의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강요 제4권에 나오는 교회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빈이 말하는 교회론은 두가지의 측면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1) 첫째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측면이며 2) 둘째는 교회의 기능으로써의 교회론을 말하고 있다. 전자는 교회의 구성원에 대한 총괄적이라면 후자는 교회의 표지로써 나타나는 말씀선포 성례전, 권징과 교직이라는 면이다. 특히 장로직무에 대한 것은 바로 교직이라는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1) 본질적 면에서의 교회

여기서는 교회를 3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첫째로 구원받은 자의 총수로서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공동체는 한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지고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이다”<sup>21)</sup>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택이다.<sup>22)</sup>라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를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의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sup>23)</sup>

칼빈은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가 신앙을 통해 영적 성장이

21) J.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36 edition, trans.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lishing Co,1989), IV.1.7.8. *Heareafter "Inst."*

22) Inst IV.1.2.

23) Inst. IV.1.1.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보고 있다. 이는 신자의 영적 성장을 돌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교육훈련을 강조한 칼빈의 교육관은 제네바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후 개혁교회의 장로직무의 특성을 이루는 동기가 되었다.<sup>24)</sup>

세 번째로 칼빈에 있어서의 교회의 이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의 개념이다. 칼빈은 이러한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엡4:4절에서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에 비유하여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성서의 가르침을 확대하여 그리스도의 중심의 본질성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불가분의 관계를 연합성과 함께 교회의 단일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카이퍼는 설명하고 있다.<sup>25)</sup>

이러한 견해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상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강요에서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교회도 둘이나 셋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므로 한 머리를 의존하여 서로가 한 몸이 되어 한 몸에 달린 지체들같이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진다.... 그들을 부르심은 영생을 다같이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께 참여시키기 위함이다.”<sup>26)</sup> 특별히 여기서 칼빈이 강조하는 사상은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위에서 말한 칼빈의 본질적인 면에서의 교회론의 근거는 교회의 조직과 제도상의 근본원칙은 신앙과 구원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의 가견적인 제도와 권위를 부정하고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세운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sup>27)</sup> 즉 칼빈의 이러한 구도는 로마카톨릭 교회의 전횡을 반대하는 것이며 나아가 성도들을 교회안에 상호 의존케 함으로써 파괴적인 주권 행사를 제지하며 또한 그 안에 어떤 질서를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보고있다.<sup>28)</sup> 나

24) 박근원,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73), p. 167.

25) Abraham Kuyper, *Lecture on Calvinism* (Grand Rapids : Eerdmans, 1983), p. 64.

26) Inst, IV.1.2.

27) Paul. S. Wright, *The Duty of Ruling Elder*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56), p.24.

28) W.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83), pp. 183-84.

아가 교회를 교황과 같은 한 개인에게 지배권을 넘기지 않기 위함이다.<sup>29)</sup>

## 2) 기능적인 면에서의 교회론 이해

칼빈은 카톨릭의 교회론에 대한 이론을 차단하기 위한 또다른 전제조건으로 교회의 기능면에서의 표지(Sign)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는 예정교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불 가시적 교회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를 강조한 다음 가견교회의 참된 표지로서 말씀의 선포 성례전의 올바른 시행 나아가 권징과 교직으로서의 교회론을 전개해 가고 있다.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씀과 성례전이 집행되며 권징이 실시되고 나아가 그것들을 맡아 봉사하는 교직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단일성을 유지해 가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바로 여기서 장로교회의 직분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에 있어서 직분론은 올바른 교회관 위에서 교회조직을 성서적인 제도를 따라 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칼빈이 성서적 직분론을 강조하는 것은 로마교회에서 성례 집행자로 변질되어 버린 복음증거자의 직분을 회복시키고 치리자에서 시종자의 위치로 전락된 장로의 직분과 위치를 회복시키려는데 있다.<sup>30)</sup>

칼빈은 이러한 교회론적 배경가운데 장로회의 직분을 신약성서(엡4:12절, 롬 12:7,8절)에서 나타난 제도를 따라 교회의 직분을 4가지로 세우고 있다. 칼빈의 직무에 대한 것은 1537년 신조(Articles of 1537)에서 그리고 1541년 교회예식서에서 장로직무의 태아를 발견할 수 있다. 스트라버그에 돌아온 칼빈은 교회예식서(The Ordinance)를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교회공직자에 장로를 부가하여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직무를 말하고 있다.<sup>31)</sup>

이 장로직은 중세교회의 사제들의 권한이 크므로 거의 거세당한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제네바에 있는 목사들과 시정장관에 의하여 선출된 장로12명과 함께 제네바시와 교회를 다스리는 협의체를 만들었다.<sup>32)</sup> 그 후 칼빈은 목사는 매주 회집하

29) Ibid, p. 188.

30) 손병호, 「장로교회사」, op, cit., p. 174.

31) Lefferts A. Loetscher, 「세계장로교회사」, 김남식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3), p. 26.

32) 허순길, 「개혁주의 정치사에서 본 장로직」(부산 : 고신대 교회문제 연구소, 1981), No. 2.에 37.

여 공중토의, 성직희망자 심사, 성서강해를 하고 교사는 제네바학교 교육사무를 담당하며, 집사는 가난한 자의 구제와 병원사무를 담당하게 만들었다.<sup>33)</sup>

그후 칼빈은 시정과 분리하여 목사들과 장로들의 모임으로 장로교회의 행정체계를 구현하였다. 칼빈의 장로직무는 철저하게 성서적 근거에 존재하는 교회론 위에서 정립하고 있으며 나아가 로마카톨릭의 사제직에 대한 도전적인 면에서 출발한 것이다.

## 2. 칼빈의 장로직무에 대한 이해

칼빈에 있어서 직분자의 근거는 에베소서 4장 11-13절<sup>34)</sup>에서 근거하여 네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교회의 통치를 주관하는 자들은 바울에 의해 첫째로 사도들, 다음에 예언자들, 셋째로 복음전도자들, 넷째는 목사와 교사들이라 불리운다. 이들 가운데 목사와 교사는 교회안에서 일상적인 직임이다”<sup>35)</sup> 여기서는 목사와 장로에 관한 것만 다루고자 한다.

칼빈은 목사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울러 교사직분의 맥락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즉 목사와 교사는 영구적으로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전도자는 임시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도와 복음전도자는 목사직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목사에 대해서는 감독, 장로의 명칭과 혼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목사<sup>36)</sup>는 4중 직책을 가지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 교육과 치리라는 직책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목사가 평신도와는 분명한 구별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도와 같은 기능을 가진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칼빈은 목사를 세움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를 말한다. 첫째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적소명과 둘째는 교회가 어떤 사람의 자질과 자격을 보아서 선택하는 외적인 소명이다. 특히 칼빈에 있어서 외적 소명을 중요시했다.<sup>37)</sup>

33) 이영현, 「교회의 발자취」 (서울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69), pp. 146-47.

34)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35) Inst, IV. 12. 7.

36)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의 도구” “세상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절” “주님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봉사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하여 평신도와 신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Inst, 4.3.10

37) Inst. IV. 3. 7.

그러므로 이러한 목사의 자질에 대한 근거를 디모데전서 3:1절<sup>38)</sup>과 디도서1:7절<sup>39)</sup>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처럼 칼빈은 목사가 되려는 자는 외적소명에 투철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목사는 그들의 동료 가운데서 선출되어 이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sup>40)</sup> 특히 칼빈은 목사직의 외적소명을 성경적 근거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을 부연하면서 치리장로에 대해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강요에서 “지금까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만 고려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겠다... 바울은 로마서(12장 7-8)와 고린도전서(12:28)는 다른 직분들을 능력, 병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것, 구체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다스리는 일과 구체하는 일 두 가지는 영구한 것이다.”<sup>41)</sup>

칼빈에게서 장로는 신자들로부터 선출된 자들로서 감독들과 함께 도덕에 대한 책망과 권징의 실행을 맡은 이들이다.<sup>42)</sup> 칼빈은 디모데전서 5장7절을 인용하여 두 종류의 장로 즉 말씀에 종사하는 장로와 설교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다스리는 일에 관계하는 장로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장로에는 두명칭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칼빈의 교직체계에서 장로는 말씀이 아니라 권징을 맡은 직책으로<sup>43)</sup>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특별히 장로직무에 있어서 목사직과 장로직과의 차이성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직에 대해 우선권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목사직은 복음을 선포하고 공적예배에서 사도권을 가지고 성례를 집행하며 개인적인 훈령이나 권면 나아가 치리권을 갖는다.<sup>44)</sup> 이들은 감독(bishops), 장로(presbyter), 목사(pastor), 섬기는 자(minister)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직책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모든 의미는 두반의 장로중 목사의 직에 집중되어 있는 중요성이다.

이에 대하여 치리직인 장로직은 제네바에서 칼빈의 말씀사역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을 검토하고 기독교인의 윤리생활을 감찰하기 위하여 평신도 중에 제네바 시의회 회원을 각 교구에 몇 사람씩 두었다. 이들 장로들은 종교법원에서 일주일에

38) “미쁘다 이말이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39)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40) K.Alant, 「종교개혁가들」 김홍수역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84), P. 138.

41) Inst. IV. 3. 8.

42) Ibist. IV.3.8.

43) Inst. IV. 11. 1.

44) Inst. 4. 3. 6.

한 번씩 교직자들과 함께 모여 치리회를 인도하였다.<sup>45)</sup>

이들은 다스리는 일, 가난한자를 돌보는 일(롬2:7-8)을 맡은 말은 치리하는 자(governer)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 된 장로(ley leders)로 목사와 더불어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치리를 맡았다. 그러나 말씀설교와 성례전을 주관하지 않았으며 성경해석도 하지 않았다.<sup>46)</sup> 폴아비스는 칼빈의 장로직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칼빈이 카톨릭처럼 계층적 구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즉 그에게서 두반의 장로는 물론이거니와 집사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직책은 상. 하의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직무의 차이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sup>47)</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칼빈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직무는 교회론에서 목사직을 교회의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장로직무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베버는 이러한 점에서 칼빈의 직무론이 루터의 만인제사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다는 점이다.<sup>48)</sup> 바로 직무자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말씀의 선포와 해석 그리고 치리라는 위탁을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V. 한국 장로교회의 이상적인 장로 직무에 대한 칼빈주의적 적용

필자는 한국장로교회의 이상적인 장로직무론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많은 병리현상중 1) 위임목사의 임기론에 대한 갈등 2) 여기에 역학적 반동으로 나타난 장로의 시무투표제 3) 목사의 설교에 대한 갈등 4) 인사문제로 인한 당회원의 갈등 5) 그리고 재정의 있어서의 갈등 등 5가지를 들어 III장에서 추론하였다. 이상적인 장로의 직무를 분석하고 제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해한 문제이다. 따라서 필자는 문제제기에서도 제시했듯이 상대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떠나 칼빈주의적인 원리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칼빈의 교회론에

45) K.Alant, op, cit, p.468.

46) 폴 D.L. 아비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이기문역 (서울 : 컨콜디아사, 1987), p. 141.

47) Ibid

48)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제역 (서울 : 풍만출판사, 1985), p. 71.

서 보여지고 있는 원리를 통해 3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목회원리(치리자)로써 의 장로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칼빈이 장로직무에 대해서 교회론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목회적 차원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강요에서 보면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라는 대답으로 신앙을 낳게 하고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한다.<sup>49)</sup> 즉 전자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며 후자는 믿음을 지닌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직분자 특히 장로의 직무의 원리는 일개인의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목회적 차원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이다.

목회적 차원이라는 전제성은 성도의 신앙성숙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두반의 장로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써 성도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란 말이다. 그의 강요에서 보면 “신앙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확고하고 확실한 인식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인쳐주시는 것이다.<sup>50)</sup>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인간이 소유할 때만이 바른 신앙이요 이러한 신앙이 교회안에서 살아있을 때만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무는 죄속에 빠진 인간들을 향해 던져지는 참신앙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되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신앙을 줌으로써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sup>51)</sup>

칼빈이 말하는 교회. 즉 본질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바로 교인의 신앙성숙을 위한 목회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이다. 따라서 칼빈의 교회론은 오늘날의 목회현장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신앙의 강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불안정한 신앙을 지닌채 괴로워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신앙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주고 실천해야 하는 치리자로서의 장로의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49) Inst. IV. 1. 1.

50) Inst. III. 2. 7.

51) 한철하, “복음사역의 바른 이해” 「십자로」 창간호, (1987) p. 10.



이러한 측면에서 두반의 장로는 교회의 치리자로서 택함을 받고 있으며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삼심제속에 장로와 목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치리가 한국적인 해석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성경적인 입장과 칼빈적 입장에서 잘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목회적 차원으로 돌아서는 장로의 직무로 복귀해야 한다. 장로의 시무투표나 위임목사의 임기제, 설교의 문제점 지적, 재정과 인사, 등 제도적 직무에서 성경적 칼빈주의적 목회의 원리로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사도들을 대신하여 교회를 돌보았다. 사도들이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세에서는 사제들에 의해 장로직무가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지만 칼빈에 의해 장로직무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로마카톨릭(Roman Catholic)의 냉랭한 교회의 제도에서 탈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목사 와 장로는 두반의 장로로써 말씀양육과 치리(돌봄)의 협력자로서 칼빈이 제기한 목회적 원리로 환원되어 질 때 갈등의 소지가 말살될 것이다.

## 2. 구원에 중재자로서의 장로직무에 임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구원에 중재자로서의 장로의 직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의 교회론 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장로의 직무는 구원의 총수로서의 소속되어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력자로 말할 수 있다. 칼빈에 있어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는 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지고 서로 굳게 연결되어있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이다.<sup>52)</sup>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온다는 것이며 이 구원의 단체인 교회의 회원의 자격의 근거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앙에 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조립되어지며 교회가 영원불변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sup>53)</sup>

또한 그 예정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이므로 교회는 말씀과 예전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즉 이는 예정교리에

52) Inst. IV. 1. 7, 8.

53) Inst. IV. 1. 3.

근거하여 가건적 교회의 참된 표지로서 말씀의 선포 성례전 나아가 권징과 교직으로서의 교회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참된 표지를 실행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자를 세움으로서 그리스도의 단일성을 유지해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예정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몇몇의 직분자를 세웠다는 성서적 근거(엡4:12)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목적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구원의 중재자로서 직분자의 직무가 지워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장로회 헌법<sup>54)</sup>에 나타나 장로의 직무를 보면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선히 권면하되...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라는 직무중에 중재자로서의 장로의 직무를 나타내고 있다. 목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자라면 장로는 목사와 신도간의 중재자라고 실천신학적인 면에서 볼 수 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면 목사는 하나님(교회)을 대표한다)<sup>55)</sup>

구약시대 장로들은 모세와 백성간에 왕과 백성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신약의 두반의 장로는 서로가 성도의 구원에 이르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가건적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이다. 단지 목사라는 말씀장로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중재하는 직무라면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는 권면과 심방과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시 중요한 직무의 담당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장로의 이상적인 직무는 실천신학적인 측면에서의 일어나는 갈등의 소지에서 벗어나 칼빈주의적 원리 즉 구원의 중재자라는 직무를 충실하게 회복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3. 상호협력자로서 장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앞 IV장 2항에서도 언급했지만 칼빈에 있어서 장로직무는 신자들로부터 선출된 자들로서 감독들과 함께 도덕에 대한 책망과 권징의 실행을 맡은 자들이다.<sup>56)</sup> 즉

5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5장 4조 2항, (합동측)

55) 맹용길,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서울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5), p. 155.

56) Inst. IV. 3. 8.

디모데전서 5장 7절을 인용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와 치리를 담당하는 두 장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칼빈이 두 장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은 바로 상호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폴 아비스가 지적한대로 칼빈은 로마교회의 계층적인(Hierarchy) 성직제도를 거부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전직분자가 목사 장로 집사 교사를 막론하고 수평적 입장에서 단지 직무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이는 직분자 서로가 협력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목사와 장로와의 구분을 말할 때가 있는데 이는 설교를 할 때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등상의 협력자라 할지라도 장로는 목사의 조력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초대교회에서도 장로는 협력자였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것은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까지도 협력을 의미한다. 교회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도와 장로는 함께 상의했다. 장로는 사도들이 중심이 된 사도교회의 보조자요 봉사자였다. 즉 협력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를 돕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치리장로는 사도시대, 개혁시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직업적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사도적 임무를 계승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calling)이나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한 협력자로서 교인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칼빈주의 원리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 VI. 맺는 말

한국의 장로교가 침체된 이유와 그 이유 중에서 장로와 목사라는 두반의 장로의 갈등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살펴보았다. 그 갈등의 배경을 한국의 초창기 장로회의 정치와 원리 그리고 장로직의 기원에서부터 현재의 협법을 비추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갈등의 주요점을 위임목사의 임기와 장로의 시무투표, 나아가 당회원의 설교 인사 재정의 문제를 5가지로 압축하여 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인간이 운영하는 제도나 삶은 긴장과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역사적 당위이다. 목사나 장로도 한 인간이란 사실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사회에는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게 마련이다.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돌출사건이 일어나



게 마련이며 또한 역사적 전통이나 환경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 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그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해결방안을 장로회의 원리자인 칼빈의 신학에서 찾으려는 등식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원리주의적이고 신학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칼빈의 교회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무론을 그 저서 강요를 통해 제언을 했다. 바로 목회원리로써의 장로의 직무 구원의 중재자로서의 장로직무 나아가 상호협력자로서의 장로직무를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장로교회는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칼빈주의적인 원리에서 장로회의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이는 기준적이고 표준적인 점이기 때문이다. 칼빈이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했다. 이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의 몸으로서 유기체라는 칼빈신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성경적인 장로회의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이고 비교회적인 갈등의 요소들을 버리고 구원받은 총수로서의 하나님의 예정안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직무를 성서적 칼빈주의적 원리로 이행할 때만이 한국의 장로회는 또다른 선교의 명령을 이행할 것이다.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 Bibliography

1.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 trans.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2. Paul S. Wright, *The Duty of Ruling Elder*, Philadelphia : Westminster, 1956.
3. P. Schaaff, *The principle of Protestantism*, Philadelphia : United Church Press, 1964.
4. 손병호, 「장로교회사」 서울 : 도서출판 그리인, 1993.
5. 차제명,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 서울 : 신내교회당, 1928.
6. 곽안연. 함태영 편, “장로교 사전록집,” 조선야소교 서회, 1918.
7. 박병진, 「교회통치통람」, 서울 : 성광문화사, 1993.
8. 오신주, 「이상적 장로직에 관한 연구」,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원, 1976.
9. 이상요, 「지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간의 상호이해와 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 : 장로회신학 대학원, 1988.
10. 박원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73.
11. W.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83.
12. Lefferts A. Loetscher, 「장로교회사」, 김남식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3.
13. 허순길, 「개혁주의 정치사에서 본 장로직」, 부산 : 고신대 교회문제소, 1981.
14. Abraham Kuyper, *Lecture on Calvinism*, Grand Rapids : Eerdmans, 1983.
15. K. Alant, 「종교개혁가들」, 김홍수역,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84.
16. 오툽베베, 「칼빈의 교회관」, 김영제역, 서울 : 풍만출판사, 1985.